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5. 죄 짓는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싫어요. [마 7:15-16]

✚ 참 가슴 아픈 주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받고서는 부끄러워지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 그러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 먼저 법에 관한 명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형태가 아닌 그 정신이 정의를 살아있게 한다. - 얼 워렌

⇒ 얼 워렌은 미국 14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법조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심히 괴롭히고 부자들은 법을 지배한다. - 골드 스미스

⇒ 골드 스미스는 성공회 신자이며 소설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 또한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에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 우리는 법이 정의를 실현시키는 기능을 하기 원하기에,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에 법을 보완하고 다듬어야 한다고 소리를 냅니다.

✚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님들도 나아가 소위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질타하고 비난합니다.

✚ 어쩌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시선일 수 있으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예와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① crime(criminal) - (크라임)

⇒ 이는 형법상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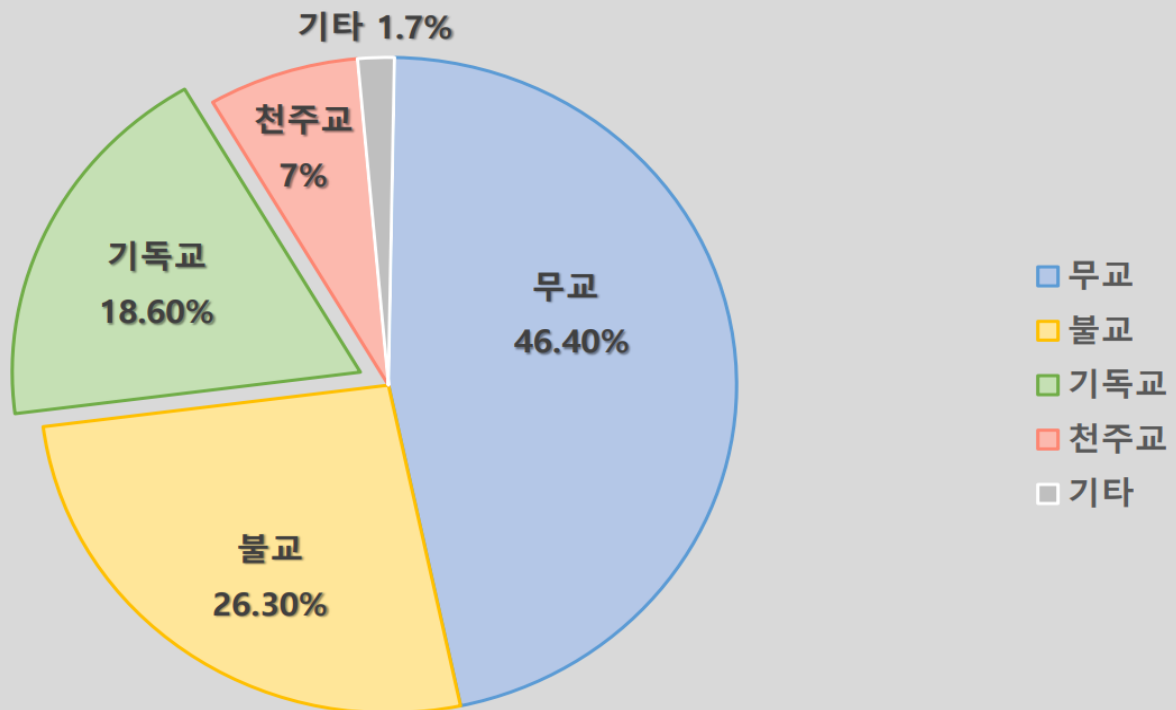
② sin(sinner) - (썬)

⇒ 이는 종교나 도덕적 규범에 반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 “목사님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크라임’에 대해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썬’에 대해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 ‘크라임’에 대해 말하는 것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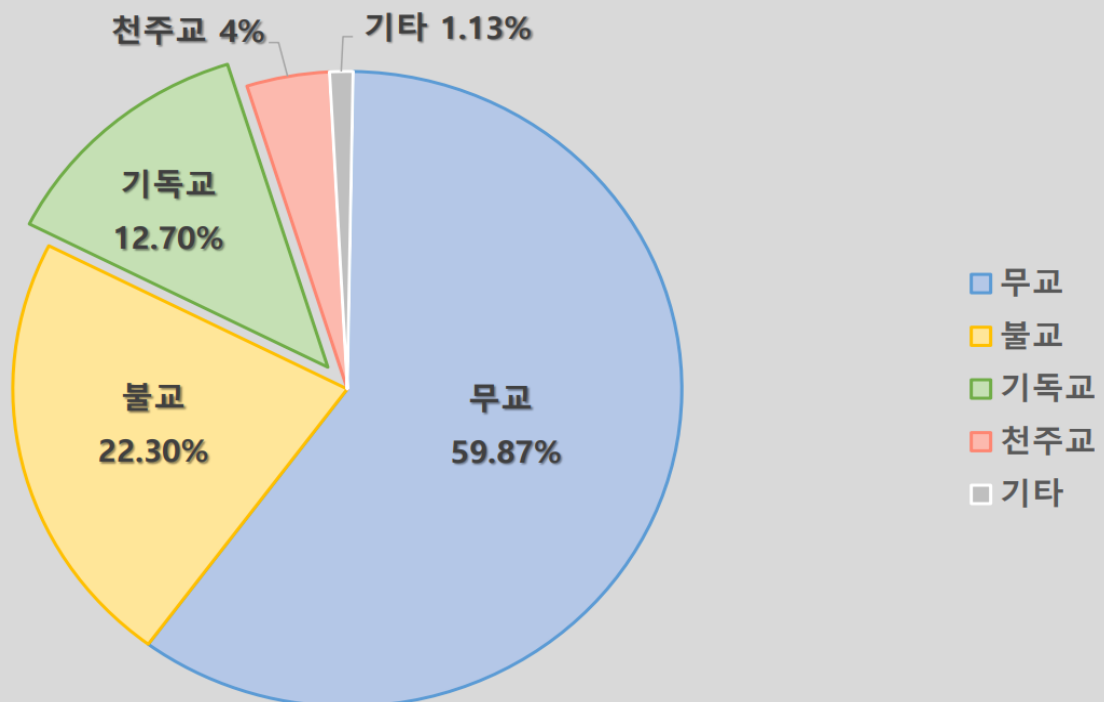
☞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지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조사에 따른 종교인의 비율입니다.

< 통계청의 1999년 종교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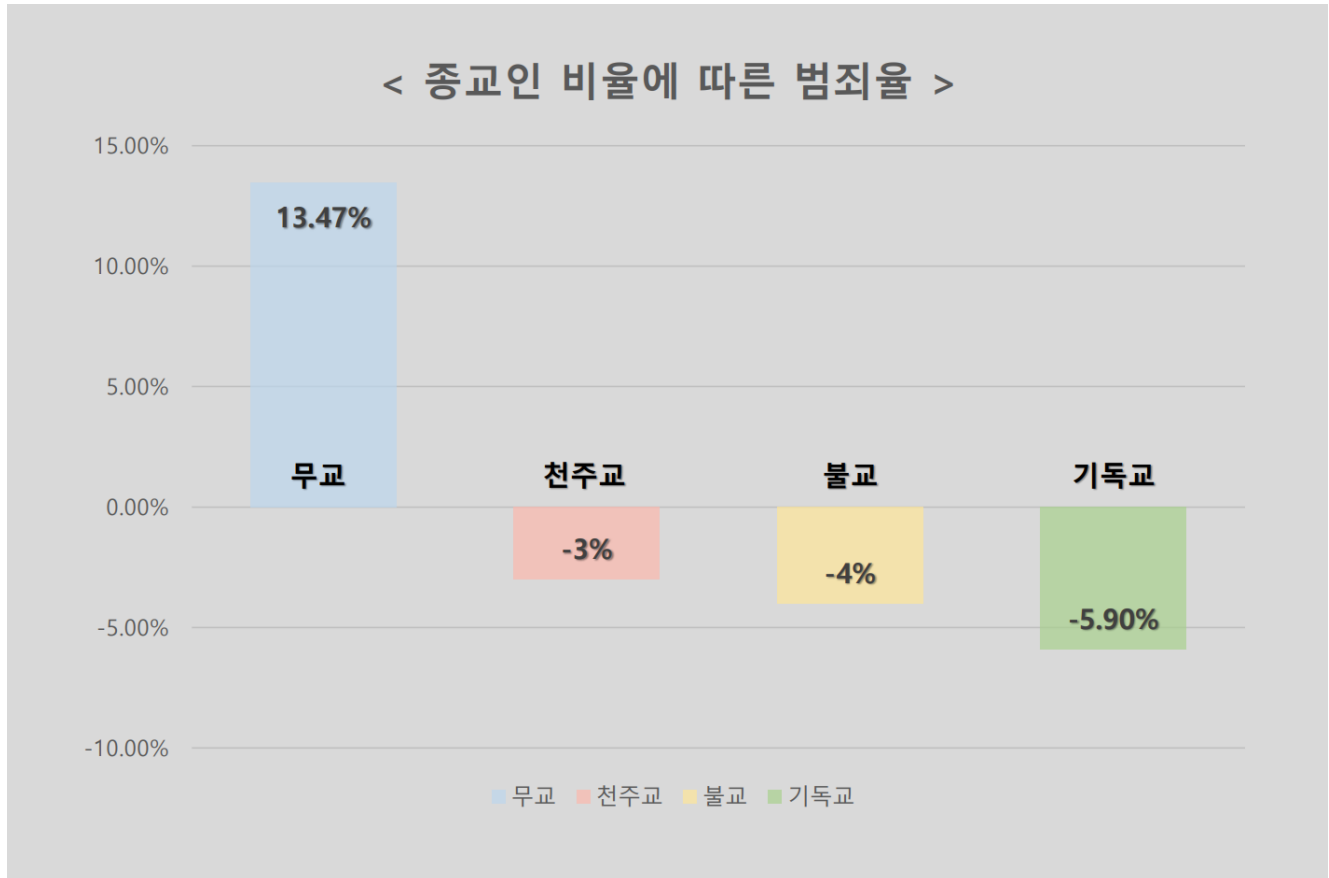
☞ 다음으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자들의 종교 비율입니다.

< 경찰청 발행 2000년도 범죄자 종교별 현황 >



✎ 이 두 통계에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범죄자의 대부분이 무교라는 사실과 생각보다 종교인의 범죄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통계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통계를 합친 **‘종교인 비율에 따른 범죄율’**입니다.



✎ 오직 무교만 그 인구수에 비해 범죄율이 높고 나머지는 인구수에 비해 범죄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범죄율이 낮습니다.

또한 종교 중 기독교의 범죄율이 가장 낮습니다.

❖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의 표를 보며 내가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별해서 생각해 봅시다.

① ‘싫어요’와 ‘때문에’로 구별해 봅시다.

- 1) 교회가 싫은 것인가? 죄 짓는 목사가 싫은 것인가?
- 2) 교회가 싫어서 목사가 싫은 것인가? 목사가 싫어서 교회가 싫은 것인가?
- 3) 죄 짓는 목사 때문이라면, 목사가 좋은 사람이면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말인가?

② “죄 짓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질문을 분석해 봅시다.

1) 일단 숫자가 많다.

⇒ 6만 개 교회, 목사 13만 명 정도/ 한 해 1만 ~ 1만 5천 명 신학교 졸업

2) 죄 짓는 목사가 많다, 적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것인가? 전체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가?

만약 전체의 3%라고 한다면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되물어 보자

Q) 죄 짓는 목사님을 몇 명이나 보셨나요? 혹은 경험하셨나요?

- 미디어에 노출된 목사님을 포함하더라도 10명이 넘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죄(크라임)짓는 목사님이 적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크라임’의 죄를 범하는 목회자의 수가 적은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지 결코 그들을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 반면 ‘죄’에 관해서는 자세를 달리해야 합니다. ‘죄’의 죄를 범하는 목회자는 많습니다.

✚ 성경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실을 증언합니다.

① 가짜 목사가 (많다)고 말씀하신다. [마24:11-12. 벰후2:1]

⇒ ‘크라임’이 아닌 ‘죄’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적 계율을 어기는 목사가 많을 것이라 말합니다.

② 가짜 목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마7:15]

⇒ 이들은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③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다. [마7:16-17]

⇒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들을 명확히 구별하는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④ 가짜 목사의 특징은 (돈), (술), (도박), (여자)를 밝힌다고 말씀하신다. [벰후2:2-3]

⇒ 이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보다 (호색)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 그렇다면 진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① (진리)를 사랑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씁니다.

② 진리로 그 양들을 양육하는 것에 (생명)을 바칩니다.

⇒ 예수님께서도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라고 목자를 정의하셨습니다.

③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이 진리를 배우며 깨닫고, 변화 받고, 은혜 받는 모든 것들이 열매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짜 목자의 3가지 특징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만일 가짜 목자의 특징이 나타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라면 내 생명을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권력에 관한 명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역경에 맞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쥐 보아라. - 아브라함 링컨

⇒ 목회자라는 거룩하고 신성한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셨듯이 목회자의 권력은 (힘)이 아닌 (섬김)과 (희생)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률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신이 만든 법칙에 따르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 톨스토이

⇒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은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폐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완해야 하나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이를 전하는 목회자는 인간이기에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자를 없애야 하나요? 진짜 목회자를 찾아야 하나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정리하겠습니다.

① 가짜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 '크라임'은 말할 것도 없고 '썬'의 죄를 범하는 목사들도 세상의 자격증만 주어졌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목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선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진짜가 존재하기에 가짜도 있는 겁니다.

⇒ 진짜가 없다면 가짜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오늘날에도 호색을 탐하는 수많은 가짜 목사들 가운데 생명을 다해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있기에 그들의 존재가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가짜를 보며 진짜를 찾으려는 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③ 가짜 목자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후2:9-12]

⇒ 하나님께서는 진짜 목자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짜 목자는 악한 영에 의해 생깁니다.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 오늘 주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외워봅시다.

“죄 짓는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어요”

- ①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라임'(형법상의 죄)과 '썬'(종교적 도덕적 규범의 죄)
'크라임'의 죄를 범하는 목사님은 생각보다 적지만 '썬'의 죄를 범하는 목사님은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종류를 막론하고 죄를 범하는 목사님은 가짜 목사님입니다.
- ② 하나님은 가짜 목사가 많을 것이며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열매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는 호색(돈, 여자, 술, 도박)을
사랑하기에 호색한 열매들을 맺지만, 진짜는 진리를 사랑하기에 진리를 품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열매입니다.

내가 참된 목자를 만났다면 나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